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13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유가·금리↑, 반도체주↓..미국증시 숨 고르기

- 미국증시 혼조: 다우 +0.11%, 나스닥 -0.71%, 러셀2000 -0.97%
- 4월 CPI 3.8%↑, 인플레 재가속 우려에 국채금리 상승
- WTI 배럴당 100달러 재돌파..반도체주는 차익 매물 출회

Summary

미국증시 혼조: 다우↑, 나스닥↓

5월 12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 전일 아시아장 반도체주 급락의 여파가 이어져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하락. 또 4월 물가지표에서 인플레 상승을 확인한 가운데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며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한 국제유가는 인플레 추가 상승과 그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주식시장 투자 심리를 압박함.

기술주 낙폭이 커 나스닥 지수가 0.71% 하락한 26,088.20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도 0.16% 하락한 7,400.96에 거래를 마침. 다만 두 지수 모두 장 중 낙폭을 축소해 최근 돌파한 마디지수 26,000과 7,400은 각각 지지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제약, 필수소비재, 금융 업종군의 상대적 강세에 힘입어 0.11% 상승한 49,760.56에 마감함. 금리 변동에 민감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 낙폭이 0.97%로 주요 지수 중 가장 컸음.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2.12% 하락한 17.99에 마감.

(다우 +0.11%, 나스닥 -0.71%, S&P500 -0.16%, 러셀2000 -0.97%)

뜨거운 물가

미국 노동통계국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집계해 공개. 4월 CPI는 1년 전에 비해 3.8% 상승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2023년 5월 이후 3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 전달 대비로는 0.6% 상승해 역시 예상에 부합.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4%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각각 0.1%p 상회함.

4월 전체 물가를 견인한건 에너지 가격으로 에너지 가격 지수는 1년 전에 비해 17.9% 상승함. 에너지 상품과 휘발유, 연료유 상승률은 각각 29.2%, 28.4%, 54.3%에 이름. 노동부는 4월 에너지 부문이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 주거비도 전달 대비 0.6%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에 일조.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특히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우려된다고 지적. 굴스비 총재는 4월 CPI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연준의 목표치 2%를 훌쩍 웃돌고 있다"고 평가.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의 주 원인인건 맞지만 관세나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서비스 항목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분석.

WTI 100달러 재돌파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지표로 확인된 가운데 이날 진행된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 추가 상승과 그로 인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한층 높임. 앞서 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생명 연장 장치를 달고 있는 것과 같은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군사 행동 재개 옵션이 테이블 위에 다시 오르고 있다고 보도하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봉착한 가운데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각에 힘이 실림. 나아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개발을 100% 중단하게 할 것이라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도 수거할 것이라고 밝혀. 이는 이란이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안으로 결국 주요 사안에서 양측의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음을 재차 확인. WTI는 4% 이상 상승해 지난 5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상회했으며 브렌트유도 배럴당 107달러를 넘어섬.

반도체주 차익실현

최근 랠리를 이어가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주가 이날은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음. 최근 한 달 사이 무려 50% 급등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같은 기간 70% 이상 상승한 AMD, 39% 상승한 퀄컴 등이 장 중 낙폭을 확대했고 이외에도 브로드컴과 램리서치, 샌디스크, 인텔 등이 일제히 하락. Vaneck 반도체 ETF(SMH)가 2.61%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중이 높은 Roundhill 메모리ETF(DRAM)는 6.86% 하락함. 올해 들어 60% 이상 상승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01% 하락해 3거래일만에 약세 전환했지만 장 중 6.8%까지 확대했던 낙폭은 축소.

특징종목

반도체주 약세..낙폭은 축소

반도체주가 전일 아시아장에 이어 미국장에서도 약세 흐름을 이음. 최근 이들 종목의 AI발 실적 모멘텀에 힘입은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졌던 가운데 높은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그로 인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읽힘. 다만 장 중 저점에서는 대체로 낙폭을 크게 줄이는 흐름.

최근 한 달 사이 주가 상승폭이 50%에 달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62%)가 장 중 11% 이상 급락하다 낙폭을 대폭 축소해 마감했고, 같은 기간 70% 이상 상승한 AMD(-2.29%)도 장 중 7%를 넘겼던 낙폭을 2%대로 줄임. 퀄컴(-11.46%)은 장 중 15% 이상 하락하다 낙폭을 줄여 마감했지만 두 자릿수 낙폭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이외 브로드컴(-2.13%), 인텔(-6.82%), 램 리서치(-2.30%), 샌디스크(-6.17%), 웨스턴 디지털(-5.25%),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80%) 등 대부분 종목이 하락 마감함. 지난달 이후 40% 가량 상승 중인 VanEck 반도체ETF(SMH)가 2.61% 하락했고, 지난 4월 초 상장한 이후 거의 두 배 가량 상승한 RoundHill 메모리ETF(DRAM)도 6.86% 하락함. 올해 들어 60% 이상

상승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01% 하락해 3거래일만에 약세 전환했지만 장 중 6.8%까지 확대했던 낙폭은 축소.

실적 발표를 일주일여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0.67%)는 장 중 2%대 약세를 보였지만 낙폭 축소해 소폭 반등에 성공. UBS는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목표주가를 245달러로 12% 상향. 서스퀘하나 역시 기존 250달러로 제시했던 목표가를 275달러로 상향했음. 번스타인과 씨티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300달러로 유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웰스파고는 목표가 315달러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씨티는 브로드컴(-2.08%)의 목표주가를 기존 475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했고 미즈호는 AMD(-2.29%)와 인텔(-6.84%), 델 테크놀로지스(-3.28%)의 목표주가를 각각 상향함. 미즈호는 AMD의 목표가를 기존 415달러에서 515달러로 높였고, 인텔은 100달러에서 124달러로 상향 조정함.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동반 약세. 오라클(-3.62%)은 오펜하이머가 목표가를 기존 210달러에서 235달러로 상향했지만 약세권에 머물렀고 세일스포스(-3.48%), 서비스나우(-2.72%), 인튜이트(-1.41%) 등도 하락 마감.

필수소비재, 금융 등 강세

실질 임금의 상승이 제한적인 가운데 인플레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소비는 필수 소비재에 보다 편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이날 시장의 성장주에 대한 차익실현 움직임이 맞물려 필수소비재, 제약 등 방어적 성격은 업종은 강세. 월마트(+2.16%), 코스트코(+2.24%), 펩시코(+1.63%), 코카콜라(+1.74%), 타겟(+2.84%), 일라이 릴리(+2.37%), 애브비(+2.50%), 유나이티드헬스 그룹(+3.11%), CVS(+3.18%).

금리 상승이 은행의 순이자마진 확대, 보험사의 채권 투자 이자 수익 확대 등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관련 종목이 강세. 제이피모간체이스(+1.63%), 웰스파고(+2.17%), 유나이티드헬스(+3.11%), 휴마나(+7.69%) 등이 상승.

이외 특징주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 퀀텀 컴퓨팅(+15.72%)이 1년 전에 비해 약 9,000% 급증한 369만 달러의 1분기 매출을 공개한 가운데 급등. 다만 디 웨이브 퀀텀(-6.99%), 리게티 컴퓨팅(-7.02%), 아이온큐(-1.79%) 등 여타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대체로 약세.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16.86%)가 급등.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의 트라이언 펀드 매니지먼트가 웬디스를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이후 주가 상승.

수소 연료 공급 업체 플러그 파워(+1.14%)는 1분기 손실 규모가 시장 예상을 밑돈 것으로 확인되자 상승.

스포츠웨어 업체 언더 아머(-17%)는 부진한 전분기 실적에 급락했고, 게임스탑(-3.45%)

은 이베이(+2.10%)가 인수 제안을 거부한 뒤 하락. 게임스탑은 이베이에 560억 달러 규모 인수 제안을 했지만 이베이는 이 거래 자금 조달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이유로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원격 의료 업체 힘스 앤드 허스 헬스(-14.10%)는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여파로 급락했고 위성 개발업체 AST 스페이스모바일(-11.62%) 역시 1분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폭 하락. 소프트웨어 업체 깃랩(-9.98%)이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공개 이후 하락했고, 비트코인 채굴 및 데이터센터 업체 클린스파크(-5.80%)는 실적 부진을 재로로 약세. 암호화폐 채굴업체 마라홀딩스(-5.00%) 역시 1분기 실적이 부진한 여파로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이틀 연속 상승

미 국채금리는 전일에 이어 이틀째 상승. (미 국채 가격 이틀째 하락) 지방 선거에서 집권 노동당이 참패한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영국의 국채(길트) 매도세가 이어지며 금리가 상승한 영향에 국제유가 상승과 뜨거운 미국의 4월 물가 지표까지 더해져 미 국채금리는 일제히 상승. 전일 3년물 입찰 수요가 부진했던데 이어 이날 진행된 미 국채 10년물 입찰 역시 수요가 다소 부진함을 확인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7bp 상승한 3.996%를 기록. 장 중 CPI를 소화하며 지난 3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4%를 상회하기도 했음. 10년물 금리는 5.1bp 상승해 4.463%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4.2bp 상승해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5% 선을 상회한 5.029%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다소 낮은 60% 초반대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25bp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20% 중반대에서 30% 중반대로 높아졌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2%대로 낮아짐.

달러 이틀째 강세

미국 달러화 가치는 전거래일에 이어 이틀 연속 상승.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4월 인플레 수치가 시장 예상을 웃돌자 달러는 강세를 보임. 파운드화의 급락도 이날 달러의 상대적 강세로 이어졌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342% 상승한 98.294를 기록했고 파운드-달러 환율은 0.573% 하락, 유로-달러 환율도 0.327% 하락세를 보임.

집권 노동당 내에서는 지방 선거 참패 이후 스타머 총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이 높아지고 있지만 스타머 총리는 앞서 총리직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도 사퇴 요구를 일축함.

전일 주간 거래에서 코스피 급락과 함께 급등했던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횡보. 전일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1,489.90원 대비 0.10원 상승한 1,490.9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10원)을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3.50원 상승한 1,492.30원을 기록.

WTI 100달러 재돌파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3거래일 연속 상승.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4.19% 상승한 배럴당 102.18달러를 기록해 지난 5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0달러를 상회. 브렌트유 7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3.42% 상승한 배럴당 107.77달러를 기록.

지난주 중반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의 큰 틀을 담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음. 전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의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도 이란의 핵 개발을 100% 중단할 것이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도 수거할 것이라고 밝혀. 이는 이란이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안으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태임을 드러냄. 미 에너지 정보청(EIA)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이 이달 말까지 사실상의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 해협 통과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원유 생산과 교역량이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최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는 돼야 한다고 전망.

국제 금 가격은 높아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확인하며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하락.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일 대비 0.9% 하락한 온스당 4,686달러에 마감. 이틀째 하락세.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6거래일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 다만 낙폭은 0.2% 가량으로 제한적.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